

CHAIRPERSON NOTE

경제 이슈

- 원/달러 환율 1,000원대 붕괴
- 한-인도 FTA 협상 개시

경영 노트

- 파이낸셜타임즈 선정, 글로벌 500대 기업
- '서비스 사이언스'가 주목받고 있다

정치 현안

- 대권후보 지지도

사회 트렌드

- 디지로그 (DigiLogue, Digital+ Analogue)
- 프로튜어 (Proteur, Professional+ Amateur)

저널 브리프

- 아시아 산업지도 바꾸는 중국

洗心錄

- Helper's High (봉사자의 희열감)

□ 원/달러 환율 1,000원대 붕괴

- 2006년 1월 4일 원/달러 환율이 998.5원을 기록해 8개월 만에 세자릿수에 진입함
 - 2005년 하반기에 들어 글로벌 달러화 강세로 1,058.1원(2005년 10월 24일)까지 상승했던 원/달러 환율이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6년에 들어 1,000원대가 붕괴됨
 - 최근 美 FRB가 2004년 6월 이후 지속한 정책 금리 인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해 글로벌 달러화가 약세 반전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
 - 더욱이 국내 수출 호조세 지속, 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 등 원화 강세 요인이 맞물려 국내 외환 시장 참여자들의 달러 매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 원/달러 환율 급락을 부추김

- 최근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는 등 국내 경제가 환율에 대한 내성이 강화되고 있으나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

□ 한-인도 FTA 협상 개시

- 2006년 2월 한국과 인도의 양국 정상 회담을 계기로 향후 약 1년여 동안 한-인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임
 - 2004년 인도 국내총생산(GDP)은 약 6,918억 달러로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으며, 물가를 고려한 PPP(Purchasing Power Parity, 구매력 평가) 기준 GDP는 3조 4,000억 달러로 세계 4위에 해당되는 초거대 시장임
 - 우리나라의 2005년 對 인도 수출은 43억 8,900만 달러로 3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하였으며, 2005년 투자도 6,965만 달러에 달함

- 인도는 평균 관세율이 약 30%에 달할 정도로 관세 무역 장벽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, 한-인도 간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

□ 파이낸셜타임스 선정, 글로벌 500대 기업

- 제너럴일렉트릭(GE)이 ‘글로벌 500’ 기업 중 1위를 탈환함
 - 전년도 1위였던 엑슨모빌은 유가가 2006년에 들어 2005년 8월말 최고점 대비 15%가량 하락하면서 2위로 밀려났으나, 대체적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이 상위권을 차지함
 -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(52위)를 비롯하여, 포스코(344위), 한국전력(366위), 국민은행(412위), SK텔레콤(450위) 등이 ‘글로벌 500’ 기업에 랭크되었음
- 유가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GM, 포드 등의 자동차 메이커의 순위가 급격히 하락함
 - 반면 닷컴버블 이후 밀려났던 소프트뱅크(167위), 애플(88위) 및 신규 진입한 구글(46위) 등의 IT기업들이 영업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순위가 상승함

□ ‘서비스 사이언스’가 주목받고 있다

- 서비스 사이언스는 서비스 투입에 대한 효과 및 리스크의 정량적 분석과 서비스 분야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일련의 과학적 체계를 지칭
 - 세계적으로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생산성의 효율화에 대한 과학적 측정 체계는 미비한 실정임
 - 2002년 미국 IBM의 알마덴 연구소와 UC버클리대학 헨리 체스브로(Henry Chesbrough) 교수팀이 서비스 과학화를 위한 공동연구팀을 결성하면서 시작됨
-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촉진되면서 기업은 지적 서비스의 부가가치 분석기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의 정량적 관리가 요청됨
 - 기업은 무형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성과의 정량적인 관리기법 구축이 요구됨
 - 미국 IBM의 경우 산학 연계를 통해 서비스 과학화의 커리큘럼 개발 및 서비스 정량기법을 구현할 인재 육성을 실시

□ 대권후보 지지도

- 차기 대권후보 지지도는 고건 전총리와 이명박 서울시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1, 2위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다음으로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1,2위와 차이가 나는 3위, 다음은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3위와 차이나는 4위인 것으로 조사됨
 - 유력 후보 중 이명박 시장의 상승세가 두드러져 청계천 효과 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

	1위	2위	3위	4위
동아일보	고 건 (24.6%)	이명박 (22.0%)	박근혜 (18.8%)	정동영 (7.1%)
조선일보	고 건 (28.0%)	이명박 (27.5%)	박근혜 (17.3%)	정동영 (5.9%)
경향신문	고 건 (25.8%)	이명박 (23.2%)	박근혜 (17.5%)	정동영 (7.4%)
문화일보	고 건 (25.3%)	이명박 (23.1%)	박근혜 (18.0%)	정동영 (5.2%)
매일경제	고 건 (27.4%)	이명박 (26.6%)	박근혜 (19.2%)	정동영 (4.6%)
서울신문	이명박 (22.6%)	고 건 (20.1%)	박근혜 (14.0%)	정동영 (6.2%)
한국일보	이명박 (23.3%)	고 건 (22.8%)	박근혜 (19.9%)	정동영 (6.4%)
KBS	이명박 (22.8%)	고 건 (20.2%)	박근혜 (19.7%)	정동영 (5.1%)
MBC	고 건 (26%)	이명박 (21%)	박근혜 (20%)	정동영 (8%)
SBS	이명박 (25.4%)	고 건 (24.8%)	박근혜 (21.6%)	정동영 (7.7%)

- 차기 서울시장 후보에서는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이고 있음
 - 동아일보 조사는 강금실(22.5%), 맹형규(9.2%), 홍준표(7.9%), 진대제(7.2%)의 순, 조선일보는 강금실(20.2%), 추미애(8.1%), 진대제(6.6%), 홍준표(5.6%)의 순, 매경은 강금실(17.3%), 김한길(9.2%), 노회찬(7.2%), 맹형규(5.2%) 순이었음
- 최근 6개월 이상 하락 또는 정체 추세를 지속해 온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
 - ‘잘하고 있다’는 긍정적 평가가 전체 응답의 30.0%임 (8월 28.4%, 9월 28.9%, 10월 27.3%, 12월 24.7%, 문화일보 조사)

□ 디지로그 (DigiLogue, Digital+ Analogue)

- ‘디지로그’는 디지털(Digital)과 아날로그(Analogue)의 합성어로서, 디지털 제품과 아날로그 기반,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적 정서가 합쳐진 제품과 서비스가 늘어나는 현상을 말함
 - 아무리 고도화된 최첨단 기술이 등장할지라도 아날로그적 사고와 행태는 사라지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
 - 콘텐츠를 담는 기술, 외양은 최첨단을 걷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소비자는 추억이 깃든 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등을 소비하려는 경향이 있음
- 디지로그적 트렌드를 잘 읽어낼 줄 아는 기업이 미래 생존 경쟁에서 승리
 - 필름 카메라의 수동 기능을 넣은 디지털 카메라, 원목 액자스타일의 디지털 액자, 디지털 이미지를 사진으로 뽑아주는 포토프린터 등 디지로그 제품 출시가 잇따르면서 관련 시장의 빅뱅이 예상되고 있음

□ 프로튜어 (Proteur, Professional+ Amateur)

- 프로페셔널(Professional)과 아마추어(Amateur)의 합성어로서, 전문가 못지 않은 식견을 갖춘 비전문가 집단을 의미함
 - 예전에는 콘텐츠나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계층이 뚜렷이 구분됐으나, 현재에는 1인 미디어인 블로그, 인터넷 미디어와 같은 IT기반 기술의 발전 덕택에 생산된 것을 수용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콘텐츠를 직접 공급, 창작하는 주체로 변신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
 - 특히 디지털 방송 IPTV(Internet Protocol Television,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 서비스, 동영상 콘텐츠 및 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) 등 쌍방향 통신서비스의 확산은 프로튜어의 영역을 더욱 넓혀 줄 것임
- (사회적 의미) 프로튜어의 등장은 집중됐던 정치·경제 권력의 분산, 탈권위 현상을 부채질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임
 - 기업들도 프로튜어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
 - 이통사 휴대폰업체들은 프로튜어를 대상으로 휴대폰 디자인 공모전을 열거나 체험단을 운영하면서 프로튜어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수혈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

□ 아시아 산업 지도 바꾸는 중국*

- (아시아 지역 산업 지도 재편) 중국은 아시아지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함과 동시에 아시아 지역의 산업 지도를 재편하고 있음

- 중국, 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최대 수출시장

- 2004년 중국의 동아시아 국가(일본, 한국, 대만, 홍콩, 싱가포르, 아세안 4)로부터의 수입액은 2,929억 달러인데 반해, 일본(중국, 한국, 대만, 홍콩, 싱가포르, 아세안 4)은 1,958억 달러로 아시아 국가의 역내 최대 수출시장으로 중국이 부상함

- 3각 무역 체제 형성

- 일본, 한국, 대만 등의 기업들은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미국 등에 수출하고, 중국은 아시아 기업 등으로부터 수입한 부품, 반가공품, 설비 등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이른바 3각 무역 체제가 형성되고 있음

- (풀셋 공업형 구조로 가는 중국) 현재 중국은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이전의 단순 조립가공형 산업구조에서 자기완결형 구조인 풀셋(Full-set) 공업형 산업구조로 발전하고 있음

- 중간재 세계 시장 점유율 급상승: 1996~2003년 사이 한국의 중간재 세계 시장 점유율은 3.9%에서 4.4%로 0.5%p 상승한 반면, 중국은 2.6%에서 6.4%로 크게 개선됨

- (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) 중국의 급성장은 일본에게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반면 한국에게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

- (한국에는 위협 요인) 아시아에서 기술과 생산의 분업이 일어나면 중국은 기술 격차가 큰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시켜 풀셋 구조를 확립시킬 것임. 이 경우에 한국은 일본의 기술과 중국의 생산능력에 압도당하여 아시아 분업 체제에서의 소외, 對中 경쟁 심화 및 수출 감소와 같은 위협에 직면할 것임

- 일본에는 기회 요인: 반면 중국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일본의 기술 수준을 추월할 수 없을 것이며, 오히려 중국의 저렴한 생산 여건이나 제품은 일본 기업의 생산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임

* 이 글은 『한경비즈니스』(2005.01.09)에 실린 글을 요약, 정리한 것임.

□ 봉사자의 희열감 (Helper's High)

아무런 대가도 없는 봉사는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만 이로운 것일까? “Healing Power of Doing Good”의 저자 앨런 룩스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주장한다. 봉사자들이 얻는 이점이 더 많다는 것이다. 봉사자의 90% 이상이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“Helper's High”(남을 돕는 데서 느끼는 행복감)를 경험했고, 봉사 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,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통증과 불편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일주일에 하루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두 배 반이나 더 장수한다.

보다 흥미로운 점은, 돈이나 물건을 기부하는 것보다 정서적 교류를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훨씬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이다. 도움을 받는 사람들과 나누는 미소, 포옹, 악수 등 ‘친밀함의 감정 교류’가 뇌의 엔돌핀 분비를 촉진해 기분을 더 좋게 만든다는 것이다. 하지만 억지로 하는 봉사는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해 건강에 해롭다.

장수의 제 1 유전자는 ‘친밀한 관계 유지’

KBS의 인기 프로그램인 <생로병사의 비밀>에서는 최근 송년 특집으로 ‘사랑의 힘’ 편을 방영했다. 결론은 장수의 제 1 유전자는 ‘친밀한 관계 유지’라는 것이다. 그리고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체크해 보라고 권한다.

1. 진정으로 나를 배려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?
2.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?
3. 기꺼이 나를 도와 줄 사람이 있는가?
4.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있는가?

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‘없다’이면 조기 사망의 위험이 다섯 배 이상 높다고 한다. 사랑을 주고받고,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건강하고 장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.

“진실을 찾는 사람은 그를 지지하는 사람의 숫자를 세지 말아야 한다.”

-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(1626-1716) : 독일의 철학자